



‘건강보험과 영상의학’ 특별호 발간에 부쳐

최준일 (보험 특별호 초청 편집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에 이어 젊은 의사들의 투쟁까지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한 정보 교류로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단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 제도 중에서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종설들을 시의적절하게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가 결정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상대가치 시스템에 의한 수가 결정이 기본이 되고, 정책 수가가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영상의학과 관련 수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판독료인데, 영상의학과는 1999년 배타적 판독료 제도가 폐지되어 전문과로서의 위상의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상의학 관련 판독료의 변천과 어떻게 우리 학회가 이 제도를 지켜왔는지 복기해 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영상의학 영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행위였던 대부분의 초음파와 MRI 검사가 급여권에 포함되게 되면서 그 적응증과 인정 횟수, 표준영상과 판독소견서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부당한 삭감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집호에서 다루는 이런 주제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향후 전문의가 될 모든 분들의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학회의 보험 관련 회무의 지지와, 더 나아가 참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집호에 기고해 주신 모든 저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